

순천시, 인간·자연 공존 미래도시 표준 만든다

와룡습지 등 국내 첫 하천·연안·산지 3대 습지 생태축 완성 람사르습지도 순천, 생물 다양성 풍부·생태 관광지 '우뚱'

순천시가 국내 최초 3대 습지 생태축 완성을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생태계 보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도시의 표준으로 우뚱 서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습지보전법에 따라 순천 와룡산지습지(와룡동 산277번지)가 국가 내륙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순천시는 기존 순천만 연안 습지와 동천하구 하천 습지에 산지 습지가 추가되면서 국내 첫 3대 습지를 보유한 도시가 됐다.

해발 고도 500m에 자리 잡은 산지형 저습습지인 '와룡 산지 습지'는 국가 내륙습지보호 지역으로는 30번째다.

면적은 0.9km²로 작은 편이지만 산 중턱에 10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둔 농경지가 자연적으로 습지 원형으로 복원된 사례라 생태·학술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다.

지난 2017년 조사 결과 자주망귀개, 꼬마잠자리, 팔색조, 새매, 담비, 삿,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7종을 포함해 총 593종의 생물종이 서식 중이기도 하다.

특히 통발과 한해 또는 여러해살이풀인 자주망귀개는 당시 전라남도 내륙에서는 이곳에서 처음 발견됐다.

꼬마잠자리의 경우 성충과 유충이 모두 확인되는 등 습지가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습지 보호지역 지정으로 '산지 습지-하천 습지-연안 습지'로 이어지는 내륙과 연안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 축이 완성됐으며, 이후 보호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와룡 산지 습지 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와룡 산지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육지화가 진행돼 훼손되고 있는 지역을 복원하고 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충 지역에 생태계연장, 최소한의 생태탐방로, 탐방안내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순천은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도심 속으로 정원을 확대하면서 최근 조성되고 있는 오천그린광장에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가 찾아오는 등 도시 전체가 인간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소멸, 기후변화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만 연안습지.

노관규 순천시장은 "현대사회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함께 생태계보호를 통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생태 수도 일류 순천은 미래도시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는 사람 또한 살기 좋은 도시라는 방증이다"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

는 순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생태도시이며 순천의 먹거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사이언스지 연구자료 분석을 토대로 습지는 숲의 5배, 바다의 500배 탄소 저장 능력이 있다. 습지는 지구 표면의 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지구 이산화탄소의 20% 이상을 저장하는 탄소 저장고로 밝혀지면서 습지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광양시 남도속박 할인 타 지역민 최대 4만원 지원

광양시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일환으로 실시하는 '남도 속박할인 BIG 이벤트'에 참여할 관광객을 모집한다.

남도 속박할인 BIG 이벤트는 개별관광객이 관내 숙박업소 이용 시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사업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체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매화·동백 축제 등 봄꽃 시즌에 광양을 방문하는 상춘객을 겨냥한다는 전략이다.

참가 자격은 광주·전남 외 주소소를 둔 개별관광객으로 지정 숙박업소 중 1개소를 선택해 우선으로 예약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희망 숙박일 최소 5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 (cksg092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할인금액은 10만원 이상 4만원, 7만원 이상 3만원, 7만원 미만 2만원 등으로 1회(최대 10박)에 한해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지정 숙박업소 목록, 참여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또 오는 31일까지 남도 속박할인 BIG 이벤트에 참여할 숙박업소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천년의 보성 차, 세계를 품다' 축제형 세계차엑스포 만난다

4월 29일~5월 7일 군 일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마련

2023년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가 '천년의 보성 차, 세계를 품다'란 주제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성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한국문화공원, 보성읍, 벌교읍, 율포해변 등 보성군 일원에서 통합축제형 엑스포로 개최된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보성세계차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은 공식행사, 특별공연, 전시·판매, 품평·경연대회, 학술대회,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존의 고정된 개념의 엑스포를 탈피하고

새로운 모델의 엑스포를 보여주면서 차문화 부흥과 보성군 차산업의 미래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난 16일에는 군청 회의실에서 보성세계차엑스포 실무추진단 34명이 모여 새로운 컨셉의 엑스포 킬러콘텐츠 확정을 위한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또 행사기간 중 ▲보성다향대축제와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비롯한 ▲불꽃축제 ▲전곡장사씨름대회 ▲녹차마라톤대회 ▲오프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동시에 개최돼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함께할 전망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타 엑스포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다 같이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축제형 엑스포를 새롭게 시도해 관광객들에게 차와 낭만을 함께 선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 밤바다 은은하게? 화려하게?

돌산-거북선대교 조명 3월 5일까지 다양한 색깔 연출

여수시가 '여수 밤바다' 주요 명소인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의 야간 조명색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다른 색깔로 연출한다.

그동안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의 야간 경관조명은 계절별 대표색으로 선명하게 연출했으나, 너무 화려하고 원색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오는 3월 5일까지 7주간 임시로 연출을 달리한 색깔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반응을 지켜 본 뒤 최종 연출 색깔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출 변경 방법은 ▲주중에는 밝고 편안한 화이트와 아이보리 색깔로 고정 연출하고 ▲주말

에는 애초대로 화려하고 선명하게 연출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밤바다는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라면서 "명성에 걸맞은 경관 조명 조성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야경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구례군,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

노후 정수장 정비·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구례군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정수장 정비, 지방상수도 확충,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군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구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추진에 12억원, 황전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7억원, 산동면 하수처리구역 개편사업 3억원 등 다양한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2017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264억 원 규모의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관 정비(40.7km)와 누수탐사 및 정비(523km) 등을 추진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45개소, 13억원)과 기

술진단(7개소, 4억원) 등 전문적인 시설을 관리·운영으로 수질 개선 등 수자원 보호에 앞장 설 예정이다.

또 쾌적한 정수시설 운영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30년이 경과된 노후 정수장을 통한 개량해 구례통합정수장 시설을 추진했던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 전역 지방상수도 공급과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목표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Green Gong advertisement for 'Green Gong Prime Ever 120' featuring a box of the product and a woman's face. Text includes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an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